

사회탐구 영역(윤리와 사상)

제 4 교시

성명

수험 번호

2

제 [] 선택

1

윤리와 사상

1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신의 본성[logos]에 어긋나는 일은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.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러한 생각에서 위안을 얻는 것이다.

을: 행복한 상태는 큰 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권력을 지닌 상태가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. 우리의 목표는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것이다.

- ① 갑: 모든 감정을 제거하고 신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.
- ② 갑: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.
- ③ 을: 은둔하는 삶보다는 공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④ 을: 감각적 쾌락의 추구를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.
- ⑤ 갑과 을: 마음의 평온함에 이르기 위해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.

4. 다음은 사회사상가 갑, 을의 가상 대화이다.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자유의 핵심은 개인의 활동이 타인이나 어떤 집단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입니다. 비록 법이 자의적 독재의 시슬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주더라도 법은 언제나 일종의 족쇄입니다.



갑

자유의 핵심은 자의적 지배가 부재한 상태입니다. 법은 필연적으로 간섭과 연관되나 이때의 간섭은 자의적이지 않습니다. 적절하게 제정된 법은 시민의 자유를 훼손시키지 않고 자유를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.



을

<보기>

- ㄱ. 갑: 개인의 삶에 대한 법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한다.
- ㄴ. 갑: 진정한 자유란 소극적 자유가 아닌 적극적 자유이다.
- ㄷ. 을: 자의적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.
- ㄹ. 갑과 을: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없으면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- ⑤ ㄷ, ㄹ

2. 근대 한국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우리는 일원상(一圓相)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복은 세상의 업(業)을 청산하고, 영혼과 육체를 함께 수양하여 [靈肉雙全] 개인·가정·사회·국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.

을: 한율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한율님에 의해 공평하게 세상에 태어난 존재일 뿐이다. 우리는 한율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[守心正氣] 삶 속에서 실행해야 한다.

- ① 갑: 종교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.
- ② 갑: 물질의 개벽을 포기하고 정신의 개벽을 중시해야 한다.
- ③ 을: 서양의 종교와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.
- ④ 을: 국난의 극복을 위해 모든 유교적 가치를 배척해야 한다.
- ⑤ 갑과 을: 새로운 세상[後天]이 현세에 도래함을 준비해야 한다.

3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갑: 영혼에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원활하게 작용한다면 지적인 덕을 얻게 될 것이며, 욕구적인 부분이 이성의 명령에 따른다면 품성적인 덕을 얻게 될 것이다.

을: 영혼의 각 부분인 이성, 기개, 욕구가 각각 제 일을 잘 수행하면 지혜, 용기, 절제라는 덕을 얻게 될 것이며, 이러한 덕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정의라는 덕을 얻게 될 것이다.

- ① 갑: 지적인 덕은 주로 교육과 탐구를 통해 길러진다.
- ② 갑: 품성적인 덕은 이성의 도움 없이도 얻을 수 있다.
- ③ 을: 정의로운 사람은 지혜, 용기, 절제의 덕을 갖추고 있다.
- ④ 을: 이성은 욕구와 기개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.
- ⑤ 갑과 을: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유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.

5. 현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인간의 본성이란 없다.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을 구상하기 위한 신이 없기 때문이다.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구상하는 무엇이며 또한 인간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일 뿐이다.

을: 인간은 항상 ‘이것이냐, 저것이냐’를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서 주체적인 결단을 회피하면서 절망에 빠지게 된다. 우리는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고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한다.

- ㄱ. 갑: 자유와 책임을 포함한 실존의 상황은 불안을 일으킨다.
- ㄴ. 갑: 인간은 이미 결정된 본질을 지니고 이 세계에 존재한다.
- ㄷ. 을: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행동할 때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.
- ㄹ. 갑과 을: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체적 결단이 필요하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ㄹ
- ④ ㄱ, ㄷ, ㄹ
- ⑤ ㄴ, ㄷ, ㄹ

2 (윤리와 사상)

사회탐구 영역

6.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성을 통해 똑똑히 보인다. 하지만 이성만으로는 신의 본질을 파악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, 이성은 반드시 신의 은총을 통하여 보충되어야만 한다. 우리는 신의 본질에 대한 직관을 통해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.

<보기>

- ㄱ. 이성적인 논증을 통한 신의 존재 증명은 불가능하다.
- ㄴ. 신앙과 이성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상호 보완적이다.
- ㄷ.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내세가 아닌 현세에서 실현된다.
- ㄹ.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7.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- 폭력에는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이 있으며, 이러한 폭력의 이면에 문화적 폭력이 있다.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 폭력으로 변진다.
-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를 넘어 구조적·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적극적 평화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- ① 폭력의 예방이 아닌 폭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.
 ② 종교와 교육 내부에 폭력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
 ③ 사회 제도나 관습에 따른 억압도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.
 ④ 물리적 폭력의 제거만으로도 적극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.
 ⑤ 평화의 실현을 위한 폭력 사용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.

8. 중국 유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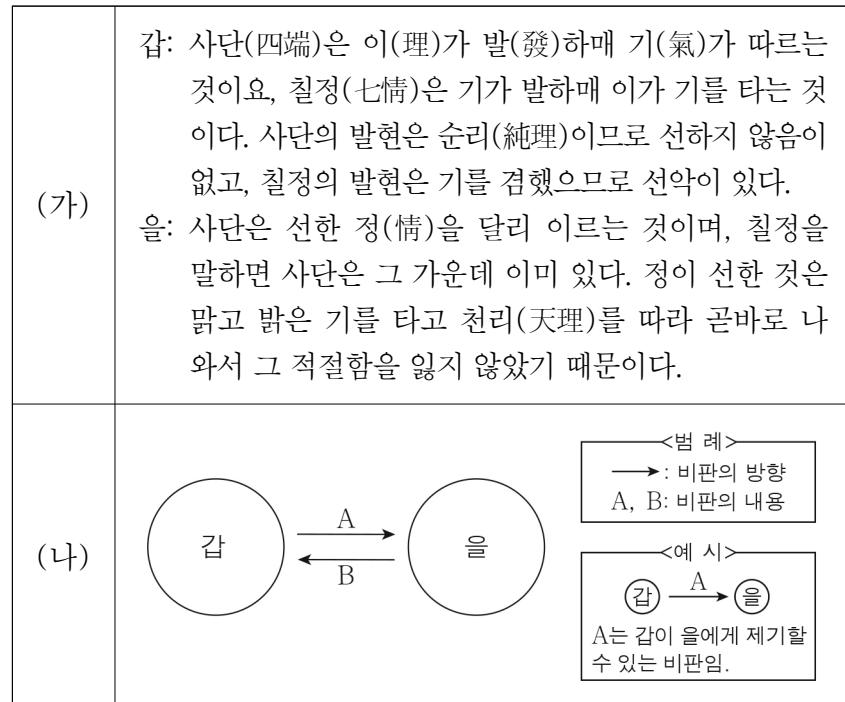
갑: 諦[知]과 行함[行]은 서로 의존한다. 마치 눈은 발이 없으면 나다닐 수 없고 발은 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과 같다. 선후를 논한다면 諦이 먼저이고, 경중을 논한다면 行함이 중요하다.
 을: 諦은 行함의 시작이고 行함은 諦의 완성이다. 무릇 사람은 반드시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 뒤에야 밥인 줄 안다. 먹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意[意]이며 또한 行함의 시작이다.

<보기>

- ㄱ. 갑: 성인(聖人)이 되기 위해 行함보다 諦을 중시해야 한다.
- ㄴ. 을: 그릇된 意를 바로잡아 마음의 양지를 실현해야 한다.
- ㄷ. 을: 도덕적 諦과 行함 사이에 선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.
- ㄹ. 갑과 을: 도덕적 諦과 行함이 일치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9. (가)의 한국 유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,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

- ① A: 발하는 것은 오직 기뿐임을 간과한다.
 ② A: 사단은 순선무악한 감정임을 간과한다.
 ③ A: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각기 다름을 간과한다.
 ④ B: 기는 이와 달리 형체가 있음[有形]을 간과한다.
 ⑤ B: 이와 기는 현실에서 서로 분리되지 않음을 간과한다.

10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갑: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.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,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.
 을: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비난 받아야 할 무지이다. 지혜와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- <보기>
- ㄱ. 갑: 도덕 판단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.
 - ㄴ. 을: 무지의 자각을 바탕으로 참된 諦을 추구해야 한다.
 - ㄷ. 갑과 을: 경험이 아닌 이성적 숙고를 통해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.

- ① ㄱ ② ㄷ ③ ㄱ, ㄴ ④ ㄴ, ㄷ ⑤ ㄱ, ㄴ, ㄷ

사회탐구 영역

윤리와 사상

3

11.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인(仁)을 끊고 의(義)를 버리면 백성은 효성과 자애를 회복하게 되며, 기교를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적이 사라진다. 소박함을 견지하여 사사로움과 욕심을 줄여야 한다.
을: 하루라도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(禮)로 돌아가면,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으로 귀의할 것이다. 인하게 되는 것은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.

- ① 갑: 인위에 얹매이지 않고 자연의 덕을 따라야 한다.
- ② 갑: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.
- ③ 을: 예를 버리고 시비(是非)의 분별에서 벗어나야 한다.
- ④ 을: 엄격한 법령과 형벌을 다스림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.
- ⑤ 갑과 을: 인의의 규범을 확립하여 이상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.

12.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
갑: 덕과 악덕은 이성만으로는 발견될 수 없고, 덕과 악덕이 유발하는 인상이나 감정을 통해서만 그 차이를 확정할 수 있다.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다.
을: 삶에서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 가능한 한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.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신과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활동을 과악하는 것이다.

- ① 갑: 감정은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.
- ② 갑: 이성은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.
- ③ 을: 자연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.
- ④ 을: 이성을 통해 자연의 질서를 인식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다.
- ⑤ 갑과 을: 도덕적 선악은 감정이 아닌 이성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.

13.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

얼어붙은 연못이 모두 물이라는 사실을 알지만, 햇볕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야 실제로 얼음을 녹여 물로 만들 수 있다. 그러므로 깨달음에 의지해 수양하고 점차 익혀서 공(功)을 이루어야 한다. 돈오(頓悟)와 점수(漸修)의 이치는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.

- <보기>
- ㄱ. 자신의 마음을 직관하여 단박에 진리를 깨쳐야 한다.
 - ㄴ. 모든 중생은 돈오 이후에 더 이상의 수행이 불필요하다.
 - ㄷ. 정(定)과 혜(慧)를 함께 닦아 습기(習氣)를 제거해야 한다.
 - ㄹ. 자신이 부처임을 자각하려면 경전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- ⑤ ㄷ, ㄹ

14. (가)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, A ~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실천 이성의 원리에 따르면, 우리는 항상 자신의 행위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 것을 의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해야 한다. 을: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면, 우리는 양과 질이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가능한 한 고통을 회피하고, 쾌락을 충분히 향유하는 방식으로 행위해야 한다.</p>
(나)	<pre> graph TD Start["A asks Jap and Il's positions"] --> A{A} A -- 예 --> Jap["Jap's position"] A -- 아니요 --> C{C} C -- 예 --> Il["Il's position"] </pre> <p><별 례> □: 출발 조건 ⇔: 판단 내용 →: 판단 방향 ⌂: 사상가의 입장</p>

- <보기>
- ㄱ. A: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동기에 의해 판단되는가?
 - ㄴ. A: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리가 존재하는가?
 - ㄷ. B: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가?
 - ㄹ. C: 쾌락의 질을 고려하는 것은 최대 행복의 원리에 어긋나는가?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ㄹ
- ⑤ ㄴ, ㄷ, ㄹ

15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: 시장 경제 사회의 두드러진 결함인 실업과 불황의 원인은 유효 수요의 부족이다.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소비 성향에 대해 지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.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만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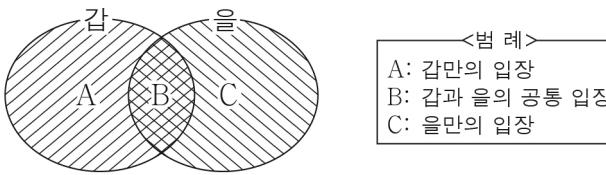
을: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계획이나 정책과 같은 인위적 질서로 바꾸려는 것은 인간의 치명적 자만이다. 정부의 경제 활동 개입은 가격과 임금 통제 및 독점을 낳아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교란하고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이끈다.

- ① 갑: 실업 문제의 해결은 시장의 원리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.
- ② 갑: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하여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.
- ③ 을: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에 비례한다.
- ④ 을: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를 통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.
- ⑤ 갑과 을: 시장에서 경제 주체들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.

4 (윤리와 사상)

사회탐구 영역

16. (가)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 ~ 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사람은 나면서부터 인의(仁義)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. 그 선량한 마음을 상실한다면 마치 산림의 나무를 날마다 도끼로 베어낸 것과 같으니 아름답지 못하다. 학문의 길은 상실한 마음을 되찾는 것일 뿐이다.</p> <p>을: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한다. 사람이 이러한 본성을 그대로 따르면 반드시 다투고 분수를 어기게 되어 사회적 혼란으로 귀결된다. 성인(聖人)은 그 다툼을 싫어한 까닭에 예(禮)를 제정해 구분을 지었다.</p>
(나)	

- ① A: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의 결과이다.
- ② A: 타인을 돋는 행위는 타고난 본성에 어긋난다.
- ③ B: 모든 사람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.
- ④ B: 수양을 통해 잃어버린 본래의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.
- ⑤ C: 성인은 하늘이 부여한 예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.

17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	국가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연법의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한다는 상호 계약으로 만든 결사체이다.
을:	국가는 비참한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보존을 위해 그들이 지닌 권리를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한다는 신약(信約)으로 만든 공통 권리이다.

- ① 갑: 국가 권력의 정당성 근거는 시민의 동의에 기초한다.
- ② 갑: 국가는 시민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권력을 지닌다.
- ③ 을: 국가 권력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분할되어야 한다.
- ④ 을: 국가에서는 자연 상태와 마찬가지로 부정의가 존재한다.
- ⑤ 갑과 을: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생겨난 자연의 산물이다.

18.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덕(德)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부끄러워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성(性)이다. 따라서 성이란 마음이 기호(嗜好)하는 것이다. 기호를 버리고 성을 말하는 것은 공맹의 유학이 아니다.
--

- ① 측은지심을 인(仁)의 시작[始]으로 보아야 한다.
- ② 이법적 실체인 이(理)를 사람의 성으로 보아야 한다.
- ③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욕구를 억제해야 한다.
- ④ 모든 존재에게 부여된 영지(靈知)의 기호를 확충해야 한다.
- ⑤ 사단(四端)은 성이라고 할 수 없으나 덕이라고 할 수는 있다.

19.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모든 존재는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이 없다. 저것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니 자신이 아는 것만 알 뿐이다. 그래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, 이것은 저것에서 생긴다고 했다. 저것과 이것이 서로를 생겨나게 한다. 그래서 성인(聖人)은 자연[天]에 비추어 본다. 자연에 비추어 보면 이것도 저것이고, 저것도 이것이다. 과연 저것과 이것의 구분이 있는 것인가?

- ① 이것과 저것의 분별이 상대적인 것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한다.
- ② 마음을 깨끗이 비워[心齋] 제물(齊物)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.
- ③ 사물이 아닌 도(道)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해야 한다.
- ④ 성인이 되기 위해 인간의 본래적 특성인 인의(仁義)를 회복해야 한다.
- ⑤ 조용히 앉아서 현재의 세계를 잊고[坐忘] 무아(無我)의 경지에 들어가야 한다.

20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유토피아에서는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거지가 되는 일은 없다. 모든 것이 공평하게 분배되기 때문이다. 사람들은 오직 6시간만 일함에도 온갖 물건들을 충분히 생산해 내고, 남은 시간에는 지적 활동이나 직업과 관련한 기술을 연구한다.

을: 공산 사회는 공동의 생산 수단으로 노동하면서 각자의 개별 노동력을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자유인들의 결사체이다. 이 사회에서는 사적 소유가 폐지됨에 따라 계급과 계급의 대립이 완전히 파괴되고 종래의 노동 분업도 사라진다.

- ① 갑: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소유와 생산에서 평등이 이루어진다.
- ② 갑: 사회 구성원의 도덕성 타락 방지를 위해 여가 생활이 금지된다.
- ③ 을: 사회 구성원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업적에 따라 분배받는다.
- ④ 을: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협력하여 국가의 부가 증대된다.
- ⑤ 갑과 을: 사유 재산 획득을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허용된다.

※ 확인 사항

-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 하시오.